

어린이 책꽂이

▲똑똑한 만화교과서(탈무드편) =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면서 교과서 밖의 다양한 상식을 담은 열린 교과서 시리즈. 아이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인간의 도리를 일깨워 주고 어른들에게는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하는 105개의 탈무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대교비데스만·8천800원)

▲밤부과 친구들-비는 왜 내릴까요(전5권) = 열대 우림지역에 사는 밤부, 베베, 비크가 통나무 위에 함께 앉아 여가지를 일들며 겪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그래픽. 각 권마다 실제 자연속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작가 니콜라 에반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화면구성이 인상적이다. 만 3~7세 어린이들에게 권장한다. (키즈랜드·각 7천800원)

▲인간도 기후를 변화시킨다? = 프랑스의 국립과학협회 과학자들이 초등학교를 위해 쓴 '영재 사이언스 클럽' 시리즈. 지구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기후변화의 요인들이 무엇인지, 기후예측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주니어김영사·8천원)

▲여우비 = 너무도 평범했던 열두살 예진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사랑과 마술. 그 속에서 예진이 겪는 마음의 소란스러움이 발랄하게 그려진 동화책. 이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열두살 주인공의 사랑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의 관심대상인 마술과 함께 유쾌하게 엮었다. (웅진 주니어·8천원)

▲달항아리 = '낮에 나온 반달', '풍당풍당', '고향땀', '어린이 날 노래' 등 동화작가 윤석중 선생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동화들을 한데 묶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책에는 표제작인 '달항아리'를 비롯 '맨발선수', '두고 온 꽃밭', '잃어버린 돈' 등 8편의 동화가 수록돼 있다. (계림북스·6천500원)



여덟번째 시집 '그래서 당신' 펴낸 '섬진강 시인' 김용택씨

“산벚꽃 흐드러진 저 산에 숨어 살고 싶네”

무엇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픈 시인의 꿈이다. 시인은 현재 고향인 전북 익산군 덕치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이번 시집은 '연

이순까지 살아 오며 느낀 삶의 열정·허무 고스란히

강·매화 등 자연도 노래

에시집(마음산책 펴냄) 이후 4년여만에 나왔다. 김씨는 “몇년 동안 써놓은 것을 엮으려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새롭게 다듬느라 지난 몇 달간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섬진강 시인’답게 강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는다. “외로움이 쇠어/지붕에 흰 서리 내리고/매화는 피며/봉창 달빛에/모로 늙는 민소리 들린다/방바닥에 떨어진 흰 머리칼처럼/강물이 광광하게 휘어지는구나/끝까지 간 놈이/일찍 꽃이 되어 돌아온다”(‘남쪽’ 전문)



시인은 책 머리에 “그때 나를 찾아왔던 나비와 매화 그리고 봄바람, 나는 이들에게 늘 ‘그래서 당신’이라고 했다”고 밝힌다. 자신에게 시상을 제공했던 자연들에 대한 고마움을 예루른 것이다.

“그래, 알았어/그래, 그렇게/나도...응/그래”(‘달’ 전문)라는 시는 시인과 달과의 대화를 마치 오래된 연인과의 전화 통화를 연상하듯 그려냈다.

김씨는 “속내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짧은 대화 속에 이미 많은 사연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동안 풀어야 할 교육문제에 대한 생각을 글로 엮어 ‘교단 일기’를 펴낸 예정”이라며 “이제까지 교육에 관한 책은 낸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할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학동네·6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박지원의 산문·일기 20여편 낱낱이 해부

연암을 읽는다 박희병 지음

“그때 문득 강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마치 누담이 시집가는 날 쪽진 머리 같았고, 강물 빛은 당시의 겨울 같았으며, 새벽녘은 누담의 눈썹 같았다. 나이를 이별과 근심, 가난이 늘 떠나지 않아 꿈결처럼 훌쩍 시간이 지났거늘 형제와 함께 지낸 날은 어찌 그리도 짧은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43세 나이로 눈을 감은 누이를 절절히 그리워하며 쓴 시다. 죽은 누이의 관을 싣고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명저를 누르고 있는 연암의 통한이 절절히 배어있다. ‘열하일기’, ‘호질’, ‘허생전’ 등 작품만으로 연암을 실학자로, 또는 시사비판과 풍자에 뛰어난 풍자 문학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연암을 읽는다’의 저자 박희병(서울대 국문학과)교수는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독일의 괴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고 단정히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사유를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 자구(字句)를 단련하면서 물질론 없이 한 편의 글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문장력 등을 통해 연암의 문장을 ‘고전’의 반열로 끌어 올린다.

그는 연암 문화의 정수인 20여 편의 산문, 일기 형식의 짧은 글을 낱낱이 해부한다. 그는 또 연암의 글들이 한문학의 전통적 작법에 얼마나 파격적 변화를 줬는지를 안내함으로써 대문장가로서 연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단지 아쉬운 점은 원문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

죽은 누이에 관한 글에 대해 저자는 “개인적인 글임에도 진솔하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는 보편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적시게 된다”고 총평한다.

이처럼 작가는 한문으로 쓴 연암의 글을 우리말로 풀어서 뒤 단락별로 주해, 평설, 총평으로 잘게 부셔 고전에 낯설어하는 독자들의 입에 넣어준다.

저자는 “내가 연암 속으로 들어가고, 연암이 내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죽었던 연암이 환생하게 되는 느낌을 독자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돌베개·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홍희담의 '깃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의식 영역에도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간은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나 나침반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거두절미하고, 인생의 동반자와 나침반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책이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역시 책이다. 책이란 우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위대한 우주이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면 ‘오월 광주의 성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홍희담의 ‘깃발’이라는 소설집을 권하겠

다. 2003년 5월 ‘장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집 속에는 다섯 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는데, 표제작이 된 중편소설 ‘깃발’을 위시하여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문밖에서’, ‘김치를 담그며’, ‘이제금 저 달이’가 수록되어 있다.

1988년 계간지 ‘창작과비평’ 봄호에 발표되었던 ‘깃발’은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룬 첫 작품이었으며, 계급적 관점과 반체제주의적 시각으로 씌어진 당대의 문화적 상징이다.

오월 광주의 성서



그리고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문밖에서’, ‘김치를 담그며’는 오월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이제금 저 달이’라는 중편소설 역시 그날 이후의 노동(勞農)연대를 다룬 작품이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오월 광주에 파묻혀 있는 바보라며 혀를 끌끌 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아픈 과거를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충고를 던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이런 점을 간과(看過)하고 있다.

오월 광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그건 그날의 모든 진실이 말꼬리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월 광주의 정신이 6월 민주항쟁과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낳았으며 분단 조국의 통일을 위한 깃발로 지금이 시기에라도 나부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월 광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일 뿐더러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아픈 과거를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그날의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져야만 한다. 그런 토대가 없는 출발은 결국 원점으로의 회귀(回歸)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월 광주는 보통명사나 아니라 고유명사이며, 지역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단어가 되어 버렸다. 또 오월 광주는 우리 민족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동반자나 나침반이다.

나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과 밝은 미래와 그리고 분단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오월 광주의 성서’라고 말했던 홍희담의 ‘깃발’이라는 소설집을 소개하며 항상 놓고 지낸다. 그리고 틀날 때마다 그 작품을 읽고 또 읽으며 희망에 젖는다.

박혜강 <소설가>



2007학년도 수능생 전원 합격률 목표도 하는 강당! 위재권 초등교육과정 전문강사 강연! 2007학년도 수능생 전원 합격률 목표도 하는 강당! 위재권 초등교육과정 전문강사 강연! 2007학년도 수능생 전원 합격률 목표도 하는 강당! 위재권 초등교육과정 전문강사 강연!

교원임용 동영선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경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수준의 강사진과 알찬 교육내용, 교육시설로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개교 하였습니다.

hanbitgosi.co.kr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공무원 첫진도·교정직특채 개강:5월1일 전문강사진의 명쾌한 강의만이 당신의 활약을 앞당깁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분·월·출·신 96.7 합격률 4월15일 첫진도 시작반! 합격률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직 장 인 (무료과정) 정보화기초-1(환급 100%) 원도우/인터넷/문서편집 활용 교육시간 PM 7:00 ~ 9:30 학비 (선납금 90,000원)

개강:4월10일 첫진도반 개강 2006년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특별채용 1,000명!! = 20세~40세 (직장인 공무원 되기위한 절호의 기회) = 합격개강 수시모집